길을 잃으면 길 앞잡이에게 물어보세요

신 유 항 / 경희대 명예교수

2. 환경처가 지정한 특정야생동·식물 목록에 실려 있는 종. "특정야생동·식물이란 그 종이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와 그 종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 고시하는 야생동·식물"을 말한다.

(1) 톱사슴벌레
Prosopocoilus inclinatus
(Motschulsky)

수컷의 큰 턱에 가시가 나 있는 모양이 톱같이 생긴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딱정벌레목 사슴벌레과에 속한다.

몸길이는 수컷은 50mm내외, 암컷은 25mm내외이다. 개체에 따라 몸길이의 변화가 심하다. 이런 크기의 차이는 유충시기의 먹이 양에 의해 좌우된다. 성충은 7~8월에 볼수 있으며 신갈나무, 떡갈나무와 같은 참나무류의 수액에 모인다. 등불에 날아오기도 한다. 유충은 참나무류의 썩은 나무를 먹고 자라며 성충이 되기까지 2년이상 걸린다.

근년에 와서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분포한다.

(2) 비단벌레
Chrysochroa fulgidissima
(Schoenherr)

비단벌레는 딱정벌레목 비단벌레과에 속한다. 몸길이가 25~40mm가 되며 온몸이 초록색 금속광택이 나는 아름다운 곤충이다.

우리나라에선 중부이남지역에서 살며 지리산이나 내장산에서는 7~9월에 볼 수 있는데, 낮에는 나뭇가지 끝에서 날아다니는데 햇빛에 빛난다. 암컷은 말라죽은 팽나무 느티나무 등의 가지에 알을 낳으며 유충은 이들 나무속을 파먹으면서 살며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약 3년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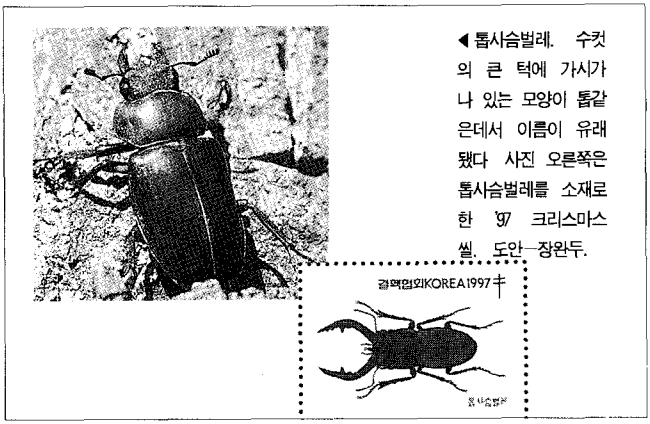
경주 신라고분 천마총에서 이 비단벌레 딱지날개로 만든 공예품이 출토되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환경처 특정 야생동·식물로 지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국외로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에 분포한다.

(3) 장수풍뎅이
Allomyrina dichotoma Linnaeus

이 풍뎅이는 우리나라산 풍뎅이중에서 크기와 우람한 몸매로 단연 으뜸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딱정벌레목 풍뎅이과에 속한다.



◀톱사슴벌레. 수컷의 큰 턱에 가시가 나 있는 모양이 톱같은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사진 오른쪽은 톱사슴벌레를 소재로 한 '97 크리스마스 씰. 도안—장완두.

몸길이는 30~55mm로 수컷은 머리에 끝이 사슴뿔처럼 갈라진 큰 뿔이 나 있고 앞가슴에는 작은 뿔이 나있다. 암컷에는 이것이 없다.

이 풍뎅이는 참나무숲에서 생활하는데 낮동안은 땅속에 파고 들어가 있다가 밤에 나와 나무진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 유충은 부엽토를 먹고 큰다.

성충은 중부이남지역에서 주로 채집되며 국외에는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유충은 민간요법의 약제로 이용된다. 근년에 인공사육되어 백화점에서 시판되고 있다.

3. 기타 곤충들

기타 곤충들이라 함은 아름다운 무늬와 색채를 갖는 것, 생김새가 특이한 것, 민속 기타 굿이나 구전으로 우리들과 친숙한 것 등을 말한다.

(1) 얼룩나방
Chelonomorpha japana Motschulsky

얼룩나방은 나비목 얼룩나방과에 속한다. 아름다운 나방으로 낮에 활발하게 날아다니며 고추나무나 엉겅퀴 꽃에서 꽃꿀을 빠는 모습이 나비와 흡사하여 이 나방을 나비로 잘못 알기가 쉽다. 흔히 나방은 어두운 색깔을 갖는 것이 많고 나비는 밝은 색의 것이 많아 색깔만 보고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는데는 이 나방과 같이 화려한 색깔의 나방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낮에 활동하는 나방 가운데는 나비 못지 않는 아름다움을 갖는 나방이 적지 않다. 날개편길이 54~56mm 중형나방으로 성충은 연 1회 5~6월에 나타나며 연

1회 발생한다.

한반도 중부이남과 일본, 대만, 중국, 버마, 인도 등 나라에 분포한다.

(2) 길앞잡이
Cicindela chinensis De geer

길앞잡이는 딱정벌레목 길앞잡이과에 속한다. 산이나 산길에서 흔히 보는 곤충으로 산길을 걷다보면 길가는 사람앞에서 조금 날아가다 멈추고 걸어가다보면 또 날아가다 멈추고 하여 마치 길 안내를 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금속 광택이 나는 아름다운 곤충으로 몸길이 20mm내외이며 민첩하게 걸어다니면서 작은 곤충을 잡아먹으며 산다.

유충은 땅에 세로로 구멍을 파고 속에 있다가 구멍입구 부근을 지나가는 곤충을 잡아먹는다.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어디서나 있고 국외로 중국에 분포한다.

(3) 왕잠자리
Anax parthenope Selys

왕잠자리는 잠자리목 왕잠자리과에 속한다. 대형 잠자리로 수컷의 배에는 선명하고 아름다운 남색 부위가 있으나 암컷은 황록색이다.

왕잠자리는 5월에서 9월 연못이나 강가의 물 고인 곳에서 힘있게 씽씽 날면서 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사나 수는 전보다 줄고 있다.

이 잠자리가 도는 영역은 이 잠자리의 텃세권으로 그 영역에 다른 잠자리가 나타나면 얼른 쫓아버리고 또 돈다. 이때 같은 종의 암컷이 나타나면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두마리의 잠자리가 나란히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앞의 것이 수컷이고 뒤의 것이 암컷이다.

이렇게 날다가 알맞은 곳에서 짝짓기를 하는데 그 모습은 다른 곤충과는 좀 다르다. 잠자리는 짝짓기전에 수컷이 앞쪽으로 배를 구부려서 제2배마디에 있는 정자를 저장하여 두는 주머니속으로 정자를 운반한다. 수컷은 배끝으로 암컷의 목주위를 붙잡으며 이 때 암컷은 배를 수컷의 제2배마디 쪽으로 구부려서 정자를 받아들인다.

왕잠자리는 큰 눈으로 경쾌하게 날면서 공중에서 날고 있는 모기, 파리, 하루살이, 나비, 나방 등 소곤충을 잡아먹고 산다. 사람에게는 귀찮은 곤충들을 먹어치우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다.

(4) 칠성무당벌레
Coccinella septempunctata Linnaeus

칠성무당벌레는 딱정벌레목 무당벌레과에 속한다. 딱지날개에 검은색 둥근무늬가 7개 있는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성충은 4월에서 11월까지 풀밭이나 밭, 산기슭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유충과 함께 진딧물을 먹고 사는 퍽 이로운 곤충이다. 유충시기에 한마리가 먹은 진딧물은 약 4,000마리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진딧물 퇴치에 이

들의 공로는 무시 못한다.

그래서 이 곤충을 "살아있는 농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딱지날개에 28점 무늬가 있는 28점무당벌레나 큰28점무당벌레는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감자나 가지잎 따위를 먹어 해를 주는데 비해 퍽 소중한 곤충이다.

칠성무당벌레. "살아 있는 농약"이라 불리는 이 벌레는 풀밭이나 산기슭에 살며 진딧물을 먹고 산다.

겨울에는 나무 밑둥치나 마른잎 밑에서 성충으로 겨울을 보낸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5) 사시나무잎벌레
Chrysomela populi Linnaeus

이 곤충은 딱정벌레목 잎벌레과에 속한다. 성충은 4~8월에 걸쳐 볼 수 있으며 주황색 딱지날개와 머리, 다리, 앞가슴등판의 남색광택은 아름답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 중국, 시베리아, 인도, 유럽, 북아프리카 등지에 넓게 분포한다.

(6) 모자주홍하늘소
Purpuricenus lituratus gangloauer

이 하늘소는 딱정벌레목 하늘소과에 속한다. 몸길이는 13~23mm로 5~6월에 볼 수 있고 꽃이나 참나무류의 잎위에 날아 상수리나무나 떡갈나무에 알을 낳는다.

적황색 앞가슴등판에는 5개의 검은색 점무늬가 있고 딱지날개에는 검은색 모자무늬가 있다. 이 하늘소의 이름도 이 무늬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 전역과 국외에는 일본,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 분포한다.

(7) 검정꽃무지
glycyphana fulvistemma Motschulsky

이 곤충은 딱정벌레목 풍뎅이과에 속한다. 몸길이 11.5~14.5mm로 5~7월에 걸쳐 나타나나 봄에 많이 볼 수 있다. 여러가지 꽃에 모이며 꽃가루를 먹는다.

몸과 다리는 검은색이며 딱지날개 중앙에 유백색의 가로 무늬가 있다.

한반도 중부이남지역과 국외에는 일본에 분포하고 있다. ✝